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인의 정서인식,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기 속

성인의 정서인식,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김 정 규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기 숙

인 준 서

김기숙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 위원장	서 수 연	(인)
심 사 위 원	김 정 규	(인)
심 사 위 원	박 혜 경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접촉경계혼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297명을 대상으로 접촉경계혼란 척도, 정서인식 척도, 대인관계문제 척도를 실시하였다. 접촉경계혼란은 정서인식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대인관계문제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접촉경계혼란 중 투사, 복합혼란은 정서인식 하위요인인 정서명확성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인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사람들에게서 멀어짐'과는 다소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정서명확성과 정서주의는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서 멀어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접촉경계혼란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인관계문제를 설명하는데 가장 유의미한 변인은 투사였으며, 다음으로 연결성, 복합혼란, 내사 순으로 포함되었다.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명확성과 정서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macro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명확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투사, 복합혼란은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관계에서 정서명확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결성은 '사람들에게 향함'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서 정서명확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인관계문제, 접촉경계혼란, 정서명확성, 정서주의, 매개효과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연구모형	6

II. 이론적 배경

1. 대인관계문제	7
2.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	9
3. 정서인식과 대인관계문제	13
4. 접촉경계혼란과 정서인식	16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19
2. 측정도구	20
1) 접촉경계혼란 척도	20
2) 정서인식 척도	22
3) 대인관계문제 척도	24
4)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26
3. 자료 분석	26

IV. 연구결과

1. 접촉경계혼란, 정서인식,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	28
------------------------------------	----

2. 접촉경계혼란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33
3.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36

V. 논의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51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55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0
<표 2> 자료수집방식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독립표본 t 검증	21
<표 3> 접촉경계혼란 하위영역 구성	22
<표 4> 정서인식 하위영역 구성	23
<표 5> 대인관계문제 하위영역 구성	25
<표 6> 접촉경계혼란, 정서인식, 대인관계문제의 기술통계 분석	29
<표 7>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독립표본 t 검증	29
<표 8> 연령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분산분석	32
<표 9>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34
<표 10>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37
<표 11>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39
<표 12> 접촉경계혼란과 ‘사람들에게 향함’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43
<표 13> 접촉경계혼란과 ‘사람들에게 맞섬’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46
<표 14> 접촉경계혼란과 ‘사람들에게 멀어짐’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50

그 립 목 차

<그림 1>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모형	6
<그림 2>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38
<그림 3> 복합혼란과 ‘사람들에게 향함’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40
<그림 4> 연결성과 ‘사람들에게 향함’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41
<그림 5> 투사와 ‘사람들에게 향함’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42
<그림 6> 복합혼란과 ‘사람들에게 맞섬’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44
<그림 7> 투사와 ‘사람들에게 맞섬’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45
<그림 8> 연결성과 ‘사람들에게 맞섬’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46
<그림 9> 투사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48
<그림 10> 연결성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49
<그림 11> 복합혼란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5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보건복지부와 전주대학교 자살실태조사 결과, 자살시도자의 자살시도 이유는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에 이어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세계일보 2015. 6.2; 이만석, 김명식, 권호인, 2015), 군장병 대상의 자살위험요인 및 직장인 스트레스원에서도 대인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국방일보 2015. 3.2; 중앙일보, 2015. 5. 14).

Argyle(1978)은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불행하며, 일부는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타인들과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맺지도 않고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Sullivan(1953; 안범희, 2010 재인용) 역시 인간이 지닌 모든 불안의 근원이 대인관계임을 지적하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가 비인간화를 촉발시키고 있는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는 인간이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였으며, 개인의 환경적응과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대인관계문제는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높으며(김예린, 2014; 이진성, 2009; 현용호, 2000), 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이종선, 권정혜, 2002).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은 대인관계 문제의 영향을 받고, 이러한 인터넷 의존성이 다시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이만제, 2009; 최현석, 하정철, 2011).

또한, 노인들이 생활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것(이소정, 2010)과 달리 성인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주된 자살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만석 등, 2015)은 대인관계가 성인기 정체성 형성뿐 아니라

부적응과 같은 사회적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삶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안정에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보편적으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대인관계문제의 어려움이다(조운경, 2003; Horowitz, 1979, 1996 재인용). 특히, 시험공부에만 매달려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유보하게 되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응적인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는 성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왜냐하면, 이시기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정서적 성숙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발달과업은 이후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권석만, 1995; 김종운, 양민정, 2014).

게슈탈트 치료에서 또한 자신 및 다른 사람과의 좋은 접촉이 심리적 건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Joyce & Sills, 2001/2010). 즉, 유기체와 환경, 자기와 타인의 개념은 구분되어 있지만, 환경 없이 유기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양자는 합쳐서 하나의 단위로 되어 있으며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Perls, 1976/1995). 이러한 유기체와 환경의 교류 및 접촉이 이루어지는 접촉경계에서 모든 삶의 활동과 심리적 사건들이 발생하며, 체험¹⁾이라는 형태로 이러한 접촉을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경계에 혼란이 생길 때 자기 뿐 아니라 타인, 환경과의 접촉이 일어날 수 없으며, 그 결과 성장에 장애가 생기게 된다(김정규, 1995, 2015). 즉, 접촉경계혼란은 개체와 환경이 직접 만나는 것을 방해하며, 타인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여 대인관계문제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보이게 한다(김주희, 김정규, 2012; 박외숙, 2004; 최종기 2005).

이러한 접촉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조절되고 수정되어야 하며,

1) 체험이란 개체가 접촉을 주관적으로 지각한 것을 의미한다(김정규, 2015).

접촉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과정을 더욱 잘 조절할 수 있게 된다(Hamilton, 1997/2014).

그리고 이러한 체험은 감정의 형태로 자각되는데, 자신에 대한 감정 뿐 아니라, 자신이 아닌 것, 자신을 넘어선 경계에 대한 감정도 포함된다(김정규, 2015).

계슈탈트 치료에서 감정 알아차림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명한 욕구와 계슈탈트 형성을 돕기 위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개체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감정은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감정 자각 차단 시 유기체적 욕구와 해소도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알아차림으로써 미해결과제를 해소할 수 있다(김정규, 2015).

따라서, 계슈탈트 치료의 과업은 감정 알아차림 등 내담자의 자각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어떻게 접촉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며(Joyce & Sills, 2001/2010), 사람들이 자신을 좀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서 각기 다른 상황에 맞는 접촉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감정은 인지와의 대립적 개념에서 지각적 인지주의로 확장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공유진, 2013). Schwarz & Bohner(1996)의 정서정보모델에 의하면 사람들은 정서를 하나의 정보처럼 사용하여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정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양에서는 서양과 달리 감정 표현 억제를 미덕으로 생각, 사회나 가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억압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지적인 것을 배우는 것에 비해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나누는 것에 대해 배우지 못하였다(이은순, 1998).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해석하고 다루는 방법에 따라 효율적인 정서조절이

가능하며 좀 더 건강하고 만족된 삶을 누릴 수 있다(우다빈, 2013; 이서정, 2005).

그러나, 이러한 정서조절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정서인식은 자기 내부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능력으로(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정서인식이 높은 개인은 지지적이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Mallinckrodt & Wei, 2005),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박경옥, 박기환, 2007). 나아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행복감, 심리적 안정 및 정신건강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임전옥, 장성숙 2003; 장수진, 김정규, 2013; 최요원, 이수정, 2004). 반대로, 정서인식이 낮은 사람일수록 높은 수준의 신체화와 스트레스를 보이고 우울 및 대인불안 등을 느끼는 등 적응에 대한 잠재적 취약 성향을 보였다(김영숙, 2010; 박여정, 2009; 박지선, 김인석, 현명호, 유재학, 2008; 이하나, 2006).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서인식이 대인관계문제에서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서 인식은 정서를 이해, 조절할 수 있으며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를 잘 관리하고 대처하는데 필요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심리치료과정에서 또한 내담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Greenberg, 2012), 행동적 변화와 내면화된 이미지 변화를 위해 해석 및 통찰을 넘어선 교정적 정서체험이 강조되고 있다(Yalom, 2005/2008).

접촉경계혼란 또한 학습된 행동으로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접촉방식을 알아감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접촉경계를 알 수 있으며, 치료자와의 좋은 접촉을 경험함으로써 향후 관계의 변화과정에서 스스로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다.

국내의 게슈탈트 치료는 1990년대에 이후 게슈탈트 집단상담, 슈퍼비전

등이 시행되었고, 알아차림과 접촉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접촉경계혼란 진단에 대한 타당도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지원, 2015). 그러나 정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있음에도 주로 내담자의 정서적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였으며, 계슈탈트치료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정서인식이 두 변인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접촉경계혼란과 정서인식의 하위요인들이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알아봄으로써, 대인관계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분류, 평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접촉경계혼란 및 정서인식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서인식의 매개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각 변인들의 하위유형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인의 접촉경계혼란, 정서인식과 대인관계문제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성인의 접촉경계혼란은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1-2. 성인의 접촉경계혼란은 정서인식과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1-3. 성인의 정서인식은 대인관계문제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대인관계문제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접촉경계혼란

하위요인은 무엇이며,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3. 성인의 정서인식은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가설 3-1. 성인의 정서인식은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접촉경계혼란이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그림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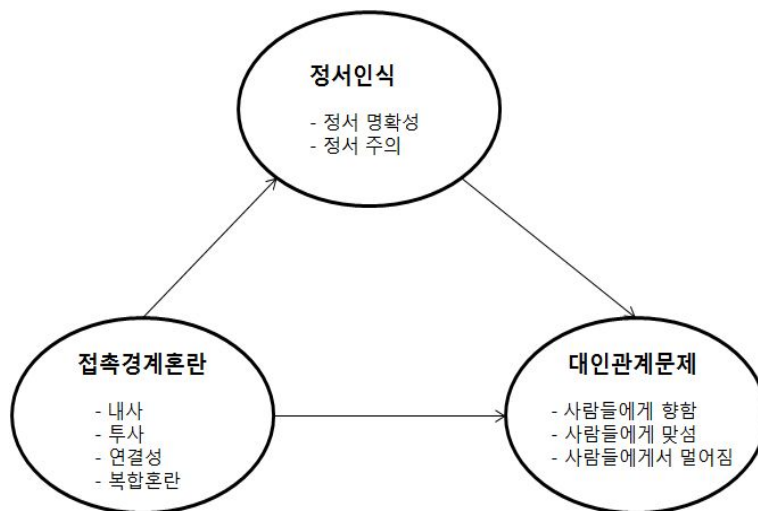


그림 1. 접촉경계 혼란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란 사람을 대하는 개인의 보편적 심리적 경향성으로 소수인,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며(한광희, 1986), 대부분의 인간행동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대인 관계적 행동이다(안범희, 2010).

신 프로이드 학자들은 인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족 및 대인관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Sullivan(1953)은 성격을 대인관계과정으로 인식, 정서 및 행동도 대인 관계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안범희, 2010 재인용). 또한, Horney는 본능이라고 생각한 많은 요인이 문화적으로 결정되며, 타인과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애정에 대한 신경증적 욕구라고 하였다(1992/2006).

따라서 타인과의 친밀하고 효율적인 관계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인간 삶의 질을 좌우하며, 대인관계 경험을 통하여 성장 발달하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한다(김예린, 2014; 이수진, 2013; 이서정, 2012; 임만수 2008).

인간관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대인감정이 있는데, 복잡한 심리적 과정이 개입하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대인감정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인 행동이라 한다(권석만, 1997).

Leary(1957)등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대인행동을 지배성과 우호성 두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권석만, 1997),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측면 뿐 아니라 미움, 증오 같은 역기능 양상을 파악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대인관계문제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다루지 못하고 피해자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박경애, 이재규, 권혜수, 1998). 즉, 소수인 또는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대인관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상호만족을 추구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부재, 결함, 혹은 왜곡을 의미한다(최임정, 심혜숙, 2009).

대인관계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주된 스트레스원으로 외견상 대인관계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나 직업 및 학업상의 문제들도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인관계적인 어려움을 배후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김유진, 2011).

Horney(1945/2006)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 타인과 자신에 대한 모순되는 태도 및 가치관의 갈등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신경증적 경향성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오남경, 2009).

그 첫 번째 경향성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기(move toward people)이다. 이들은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타인을 자신보다 우월하게 여기며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경향은 사람들에게 맞서기(move against people)이다. 이들은 타인을 지배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욕구가 강하며, 패배,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경향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기(move away from people)이다. 이들은 자신과 타인 사이에 감정적 거리를 두고 영향을 받거나 엮이지 않으려 하며,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려 한다.

Horney(1992/2006)에 의하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이러한 세 가지 경향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표현하지만, 신경증적인 사람들은 어느 하나에 집착하게 되고 모든 상황에 강박적으로 하나의 우세한 경향성을 추구하게 되기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Sullivan 등의 영향을 받은 Leary(1957)는 친애와 통제 두 축을 중심으로 대인관계 원형 모델을 제시하고, 8개 하위분원으로 나뉘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척도가 만들어졌으며 모든 대인관계 행동은 8개 영역(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김영환 등 2002; 안은화, 2012; Horowitz, 1996).

2.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고 환경이라는 장(field)이 있어서 비로서 존재하며, 어떤 장에 속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사고나 행위, 감정은 이러한 환경과의 접촉경계(contact boundary)에서의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의해 달라진다(Perls, 1976/1995). 이러한 접촉경계는 항상 움직이고 유동적인데 건강한 개체는 환경과 교류하며 필요에 따라 경계를 조절하고 선택한다. 그러나 환경과의 유기적인 교류와 접촉이 차단되어 경계가 너무 단단하거나 불분명하면, 전체로서의 통합이 방해되고 심리적·생리적 혼란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접촉경계혼란(contact boundary disturbances)이다(김정규, 2015).

따라서,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이러한 방어를 해제하고 내면의 부분을 접촉하게 함으로써 ‘나-경계(I-boundary)’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과의 접촉이 확대될 수 있다(김정규, 2015).

Perls는 접촉경계혼란을 5가지 종류로 들었고(융합, 내사, 투사, 반전, 자의식), 김정규는 7요인(내사, 투사, 반전, 융합, 자의식, 편향, 연결성요인)구조로 구분하였다(김지원, 2015).

세부내용을 보면, 1) 내사(introjection)는 타인의 신념과 기준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별로 관심 두지 않고 환경

이 제공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이현림, 박연수, 1995). 내사가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데 익숙하여 피상적이고 관에 박힌 행동을 하며 깊은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김정규, 2015). 내사는 말하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서 불일치한 감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신체감각 및 욕구를 자각하고 외부환경을 어떻게 내사했는지 알아차림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김정규, 2015; Hamilton, 1997/2014). 내사는 ‘착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등 대부분 사회행동과 관련하여 자율적인 행동을 억누르는 것과 관련된다(Caffaro, 1989; 유계식, 2001 재인용).

2) 투사(projection)는 내사의 반대현상으로 자신의 성격에 있는 특성, 태도, 감정,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타인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Hamilton, 1997/2014). 예컨대, 자신이 타인에 대해 애정이나 적개심을 갖고 있으면서, 오히려 타인이 자신에게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김정규, 2015). 또한, 자신이 거부하는 특질을 타인에게서 찾아냄으로써,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피하고 실제의 자기모습도 회피한다(이현림, 박연수, 1995). 이들은 대부분 자아경계가 경직되어 교류나 접촉이 별로 없고, 타인의 이목에 지나치게 예민하며, 심한 방어를 보인다(김정규, 2015; 김주희, 이주희, 2008). 질투심, 편집증적 성격, 강한 편견을 예로 들 수 있다(Caffaro, 1989; 유계식, 2001 재인용).

3) 연결성(connectedness)은 Polster(2006)가 처음 소개한 것으로, 유기체는 자기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 등과 접촉하면서 타인과의 접촉인 연결성을 통해 기능한다(김지원, 2015 재인용). 타인과의 연결성을 통해 유기체가 일상에서 심리적 고통이나 경험들을 개방하고 나눔으로써, 심리적 긴장에서 벗어나 이완되기도 한다. 이렇듯 연결성은 타인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순기능 역할을 한다(김지원, 2015).

4) 융합(confluence)은 자기와 타인의 구분이 불분명해서 경계가 없는 것으로 자아와 환경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Clarkson 1989/2010). 대인관계에서 융합은 갈등이 없는 것, 혹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느낌과 사고를 경험한다고 믿는다. 예컨대, 감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울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심동체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서로 간에 어떤 갈등과 불일치도 용납하지 못한다(노안영, 2013). 자신이 관계에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하며, 융합관계를 깨뜨리려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Joyce&Sills, 2001/2010; 김정규, 1995, 2015). 병리적 융합은 타인 뿐 아니라 신체와 같은 자기 자신과의 접촉도 혼란에 빠져 심신증(정신신체증, psychosomatic)의 뿌리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폭력 및 전쟁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Perls, 1976/1995).

5) 반전(retroflexion)은 자기가 받고 싶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김주희 등, 2008; Hamilton, 1997/2014), 환경과 접촉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현상이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에도 혼자 속으로 내적 대화를 하거나 딴 생각을 하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회피한다(김정규, 2015; Harman, 1989). 반전은 개체의 에너지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한 부분은 나가려하고 다른 부분은 붙드는데 사용되어, 신체 및 강박 증상, 분노, 자학으로 유도될 수 있다(Joyce&Sills, 2001/2010).

6) 자의식(egotism)은 개체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하는 현상으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김정규, 1995; Clarkson, 1989/2010). 자의식은 충족되지 않은 자기애적 욕구로 대인공포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대표적 예이며, 현실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분석하는 면도 보이지만, 자신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여 자발적인 자연스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7) 편향(deflection)은 환경과의 접촉을 피해 감각을 둔감화 시키는 것으로 불안 방어가 주요 목적이다.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하지 않고 빙빙 돌리는 것, 유머를 사용하여 분노 같은 강한 감정을 피하는 것, 자기 말에 변명하는 것이 해당된다(유계식, 2001). 편향은 심리적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부정적 감정을 덜 느끼도록 피하는데, 그와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도 차단함으로써 삶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김정규, 2015). 반전이 신체긴장을 수반함으로써 외현적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편향은 당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다(김정규, 2015).

위와 같이, 접촉을 방해하는 개인의 접촉경계혼란 유형들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은 내담자의 알아차림을 돕고 접촉을 증가시킴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게슈탈트 집단치료가 우울, 불안 및 공격성, 충동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국내연구 결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일다, 2009; 김민정, 2003; 이은비, 김정규, 2013; 한혜영, 이종승, 2000).

게슈탈트 치료는 알아차림과 접촉을 기반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며(김정규, 2015), 환경 내 접촉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Passons, 1975/1995)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관계란 단순히 접촉의 순간들을 합한 것이 아니라 접촉이 반복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전체이며 게슈탈트이다(김정규, 2015). 따라서, 개체가 자신의 접촉경계혼란을 알아차려 제거하고, 불안으로 변형되어 표출되는 에너지를 타인 및 환경과의 접촉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인관계 역량과 같은 개인의 변화와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Harris, 2000; 이상하, 2012 재인용).

현대 게슈탈트치료의 대표적인 치료 기법인 빈 의자 기법과 두 의자 기법은 투사, 내사 등의 접촉경계혼란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자신 또는 중요한 타인과의 상상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강한 대립을 경험하고 직접적으

로 얘기해보도록 함으로써 접촉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나면, 이러한 요구들은 중요한 타인 또는 자신과 협의를 하고, 대인 관계 적 갈등 해결로 나아가게 된다(Elliott, Watson, Goldman, Greenberg, 2004/2013).

Yalom(2005/2008) 또한 정신과적 치료에서 실제의 대인관계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과 만족스럽게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인관계 왜곡을 고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김주희, 2008, 2012)를 보면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 대인관계문제에 접촉경계혼란 하위영역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접촉경계혼란 유형중 투사, 반전, 융합, 편향이 대인관계문제 하위유형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최종기, 2005).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접촉경계혼란의 남녀차이 연구(박외숙, 2004)에서 반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하였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접촉경계혼란에 대한 유계식(2001)연구에서는 내사와 반전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유의미한 남녀 차이가 나타났고, 내사를 제외한 다른 하위 척도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부정적이었다. 그중 편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접촉경계혼란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구(박외숙 2004; 최종기, 2005)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3. 정서인식과 대인관계문제

정서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자각하고 그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상태로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며(김경희, 1995), 우리로 하여 행동하게끔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내적감각과 외적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인식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Atwater,

1990/1994).

정서의 개인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서지능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친사회적 개념으로 정서를 본 Greenberg는 정서가 욕구, 가치 등과 작용하며 정서 없이 사람들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하였다(Elliott, Watson, Goldman & Greenberg, 2004/2013; 성혜옥, 2011). 따라서, 정서가 개인의 사회적 적응, 심리적 안녕과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성선훈, 2008; 이주일, 민경환, 1996; 이진성, 2009), 이후 연구들을 통해 정서지능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1999; Atwater, 1990/1994).

Salovey et al.(1995)는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Trait Meta-Mood Scale(TMMS)을 개발하였는데, meta-mood는 정서와 인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개념(임전옥, 장선숙, 2003)으로, 정서 명확성,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 개선 3요인으로 구성된다. 메타 기분(meta-mood)은 기분, 정서, 느낌 등 정서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항목들의 구분보다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김연주, 조한익, 1998).

세 요인 중 정서 명확성이란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정도(임전옥 등, 2003; Salovey et al, 1995)로서, 정서 정보처리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된다.

정서중심치료(Emotion-Focused Therapy)를 개발한 Greenberg(2004)는 정서 기저의 욕구를 알기 위한 정서 자각을 강조하였으며, 정서기저의 욕구를 모른다면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자신의 진정한 정서를 인식했을 때, 관련된 부적응적인 정서가 변화될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인 타인의 정서 추론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이주일, 민경환, 1996; 문지영, 2013).

TMMS(Trait Meta Mood Scale) 하위요인 정서 명확성과 심리적 안녕감

을 연구한 국내연구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 우울 같은 병리적 증상을 덜 경험하며 주관적 만족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김영혜, 2003; 이서정, 2005; 장수진, 김정규, 2002; 홍주현, 심은정, 2013).

정서 주의는 개인이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로서(임전옥 등, 2003; Salovey et al, 1995), 개인의 가지는 예민성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이 예민성이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공감능력으로 기능하여 대인관계상의 통찰을 제공할 수도 있다(김미경, 1998; 김현주, 2005 재인용). 그러나 정서 주의는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어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에는 불안이 증가하고 반추경향이 있어 과도한 정서주의는 우울과 같은 내적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권지혜, 2010; Swinkels & Giuliano, 1995).

Berenbaum, Boden, Baker, Dizen, Thompson, & Abramowitz(2006)는 정서 명확성이 낮을수록 타인을 의심하거나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보고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Boden & Berenbaum(2012)은 그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타인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이나 준임상적 피해망상인 의심은 정서인식과 관련을 보였고, 정서의 원인이나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의심이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서의 명확한 인식 없이 정서에 대해 무분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될 때 이것은 부적응적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는 반면, 정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이 동반된다면 적응적인 상태로 이어질 것이다(최요원 등, 2004; 김유진,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 주의와 정서 명확성 두 가지를 ‘정서인식’으로 정의하여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정서인식과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국내연구에서, 정서인식이 높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와 정적상관을 보이며(이한우 등, 2014), 대인관계문제 중 냉

답, 사회적 억제, 자기중심성, 비주장성, 과순응성, 통제지배가 정서인식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권진희, 2007).

영아는 새로운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의 적절성을 경험하며 타인과 정서적 의사소통을 시작하게 된다(Shiota&Kalat, 2011/2015). 이러한 과정에서 정서인식은 경험하는 정서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자신의 기분 이해, 관리를 통해 정서를 조절하고 나아가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김은영, 2009; 이주일, 민경환, 1996; 우다빈, 2013).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남녀의 정서인식에서 정서인식이 높을 수록 대인관계문제가 적다는 결과는 남녀모두 일치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정서에 대한 주의를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정서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김유진, 2011).

생활하면서 대인관계문제로 인해 부정적 감정이 생길수도 있으나, 개인의 부정적 감정이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때도 많다(임창희, 홍용기, 2004). 따라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해야 하며, 대인관계를 습득하는 언어,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이한우, 염동문, 이미희, 2014).

4. 접촉경계혼란과 정서인식

게슈탈트 치료에서 모든 정신병리 현상은 접촉경계혼란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문제들이 배경에 머물러(김정규, 2015) 접촉을 방해하면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실을 왜곡하고 전체로서 통합되지 않은 힘들 간의 갈등을 일으켜 불안을 초래한다고 한다(노안영, 2013).

게슈탈트 치료의 창시자인 Perls(1976/1995)는 우리들 생명 그 자체라고 표현하며 정서(emo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생기는 원초적인 흥분을 변화시켜 구체적인 정서로 바뀌고, 그 정서는 행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게슈탈트 치료적 접근에서 정서란 개체의 욕구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고, 행위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서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이 개체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정서가 행동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는 심리이론에서 게슈탈트 치료는 개척자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유계식, 2002).

게슈탈트 치료에서 건강한 유기체는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 알아차림-접촉주기를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알아차림-접촉주기가 접촉경계혼란으로 단절되면 미해결과제가 쌓이고 심리장애를 일으킨다(Perls, 1969b; 김정규 2015 재인용). Corey(1996; 한혜영 등, 2000 재인용)는 미해결과제는 원한, 분노, 증오, 고통, 불안, 슬픔, 죄의식, 포기 등과 같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라고 하였으며,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느낌은 기억과 환상으로 명료하게 연합되어 전경에 머무르며 효과적인 접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내담자들을 위한 치료는 내담자가 머물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느낌에서 시작하며, 해결의 상태로 끝을 맺는 것을 보여준다(한혜영 등, 2000). 즉, 심호흡을 하거나 신체감각에 집중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신체활동이나 감정 표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행동 하나 하나를 자각하고 표현해보도록 해야 한다. 또한, Clarkson(1989/2010)은 ‘알아차림-접촉주기’ 각 단계에 필요한 기법들과 실험으로 정서적 유창성, 감정표현 작업 및 카타르시스 등 정서적 경험을 매 단계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Passons(1975)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머리로만 하는 것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감수성을 수반한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따

라서, 게슈탈트 치료자는 이전에는 결코 직접적으로 표현된 적 없는 강렬한 느낌을 회피하지 말고 치료시간에 표현도록 격려한다(이현림 등, 1995).

이렇듯 감정은 쏠 접촉단계에 관여하며, 새로운 대상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만들어 환경과의 접촉을 시도하게 함으로써 게슈탈트를 완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김정규, 2015), 접촉경계혼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Greenberg & Malcolm(2002)은 대인관계문제와 아동학대로 상처받은 내담자를 중심으로 정서초점과 게슈탈트 빈의자 대화의 치료성과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치료결과 내담자들은 충족되지 않은 대인관계 욕구를 표현하였고 타인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변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들은 강도 있는 정서를 표현했고, 강도 있는 정서를 표현한 내담자들은 타인에 대한 그들의 관점 변환을 더 많이 경험했다. 또한 게슈탈트 치료법(빈의자, 두의자 기법)이 포함된 과정-경험(process-experiential) 치료에 16주간 참여한 내담자들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자기보고가 다른 치료에 비해 유의하게 급감하였다(Watson et al, 2003). 이는 접촉경계혼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게슈탈트 치료의 효과성을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정서적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게슈탈트 집단치료의 치료요인에서 정서적 인식과 통찰이 치료효과를 예측하는 정적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이상하, 2012), 게슈탈트 예술치료를 통해 우울장애 환자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확인한 연구에서 음악과 같은 반복적 정서경험이 접촉경계혼란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이들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나혜숙, 2006).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성인 남녀 309명을 임의 표집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온·오프라인 모두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문을 제공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309명중 연구 연령(만19세~49세)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부를 제외하고 총 297명(오프라인 설문 156명, 온라인 설문 141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성별분포는 남성 101명(34.0%), 여성 196명(66.0%)으로 나타났으며, 40대 133명(44.8%), 30대 86명(29.0%), 20대 69명(23.2%), 무응답 9명(3%) 순서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회사원 186명(62.6%), 주부 57명(19.2%), 기타 24명(8.1%), 학생 21명(7.1%), 자영업 9명(3.0%)순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타에는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등이 포함되었다.

오프라인은 온라인설문에 비해 성별, 연령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직업에서는 회사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주요변인들이 자료수집방법(오프라인, 온라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서인식, 접촉경계혼란, 대인관계문제 전체 점수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접촉경계혼란 중 내사($t=-2.87, p<.01$)와 연결성($t=2.43, p<.05$) 에서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내사의 경우 온라인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응답한 사람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결성의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응답한 사람들보다 더 높게 보고하였다. 오프

라인은 온라인에 비해 익명성이 덜 갖춰져 있어 연결성과 같은 순기능적인 접촉경계혼란을 더 많이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97, 오프라인N=156, 온라인N=141)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성별	남	101	73	28	34.0	46.8	19.9
	여	196	83	113	66.0	53.2	80.1
연령 (만)	20대	69	39	30	23.2	25.0	21.3
	30대	86	61	25	29.0	39.1	17.7
	40대	133	54	79	44.8	34.6	56.0
	무응답	9	2	7	3.0	1.3	5.0
	학생	21	7	14	7.1	4.5	9.9
직업	회사원	186	147	39	62.6	94.2	27.7
	주부	57	-	57	19.2	-	40.4
	자영업	9	-	9	3.0	-	6.4
	기타	24	2	22	8.1	1.3	15.6

2. 측정도구

1) 접촉경계혼란 척도

Caffaro(1989)가 고안한 GCSQ-R(The Revised Gestalt Contact Boundary Style)을 유계식(2000)이 번역하여 6개의 하위요인(내사, 투사, 융합, 반전, 편향, 감각차단) 총 142문항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규가 7요인(내사, 투사, 융합, 반전, 자의식, 편향, 관계성)으로 구성된 총 80문항의 접촉경계진단검사(Contact Boundary Scale)를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김지원(2015)이 김정규 7요인 척도를 4요인(내사, 투사, 연결성, 복합혼란) 29문항으로 만든 접촉경계진단검사(GCSQ-R) 단축형을 사용하였다(표3).

표 2. 자료수집방식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독립표본 *t* 검증 (*N*=297)

변인	설문방식	빈도	평균	표준편차	<i>t</i> 값	<i>p</i> 값
정서인식	오프라인	156	3.67	.44	-.33	.74
	온라인	141	3.68	.43		
정서명확성	오프라인	156	3.67	.52	-.63	.53
	온라인	141	3.71	.50		
정서주의	오프라인	156	3.66	.64	.38	.70
	온라인	141	3.63	.69		
접촉경계혼란	오프라인	156	3.53	.38	.44	.66
	온라인	141	3.51	.37		
내사	오프라인	156	4.63	.71	-2.87**	.00
	온라인	141	4.84	.55		
투사	오프라인	156	2.63	.75	.46	.64
	온라인	141	2.59	.81		
연결성	오프라인	156	3.61	.82	2.43*	.02
	온라인	141	3.37	.89		
복합혼란	오프라인	156	3.23	.60	.01	.99
	온라인	141	3.23	.67		
대인관계문제	오프라인	156	2.43	.63	.72	.47
	온라인	141	2.38	.59		
사람들에게 향함	오프라인	156	2.42	.68	.66	.51
	온라인	141	2.37	.63		
사람들에게 맞섬	오프라인	156	2.22	.54	1.82	.07
	온라인	141	2.10	.55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오프라인	156	2.25	.59	.87	.38
	온라인	141	2.19	.59		

p* < .05, *p* < .01

접촉경계진단 단축형 하위요인 중 내사는 사회와 부모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기는 내면적인 갈등을 의미하며, 투사는 자신의 내적욕구와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연결성은 개인이 심리적 고통이나 적응의 어려움이 있을 때 타인과의 연결성으로 인해 자기개방과 도움을 청하는 것을 평가하며 복합혼란은 7개 요인의 나머지(편

향, 자의식, 반진, 융합)를 총칭한다.

내사에 해당되는 문항에는 ‘남에게 욕들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가 있으며, 투사 문항에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것 같다’가 있다. 그리고 연결성 문항에는 ‘어릴 때 내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었다’, 복합혼란 문항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따라하는 편이다’가 있다.

본 척도는 6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경계혼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지원(2015) 연구에서 4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내사 .64, 투사 .73, 연결성 .73, 복합혼란 .73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4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내사 .62, 투사 .75, 연결성 .63, 복합혼란 .80, 접촉경계혼란 전체는 .74를 나타냈다.

표 3. 접촉경계혼란 하위영역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내사	5	16, 19, 21, 24, 26	.618
투사	5	3, 4, 7, 12, 25	.753
연결성	5	6, 15*, 18*, 23, 29	.633
복합혼란	14	8, 17, 27(융합)/ 1, 9(반진)/ 10, 13, 22(편향)/ 2, 5, 11, 14, 20, 28(자의식)	.804
전 체			.740

* 역방향 채점

2) 정서인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Salovey 등(1995)이 개인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것을 이수정, 이훈구(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메타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TMMS는 자신의 정서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정서 명확성, 개인이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인 정서주의, 부정적인 상태를 종결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인 정서 기대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TMMS 타당도 연구(이수정 등, 1997)에서 정서명확성, 정서주의가 ‘감정부전’이라는 정서적 부적응 증세와 상관이 높은 것에 비해, 정서기대는 ‘감정부전’과 상관이 없고 정서명확성, 정서주의와 비교적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명확성 척도 11문항과 정서주의 척도 5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표4).

정서 명확성 문항에는 ‘나는 늘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스럽다’, ‘나는 쉽게 감정을 느낀다’가 있으며, 정서주의 문항에는 ‘나는 별로 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보통 시간낭비이다’가 있다. 형식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5점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수정, 이훈구(1997)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정서 명확성은 .86, 정서 주의는 .88이었으며 재검사 신뢰도는 .94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정서 명확성 .81, 정서주의 .82, 정서인식 전체 .80으로 나타났다.

표 4. 정서인식 하위영역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정서 명확성	11	1*, 2*, 3, 4*, 5, 6, 7*, 8, 9, 10, 11*	.812
정서 주의	5	12, 13*, 14, 15*, 16*	.819
	전체		.797

* 역방향 채점

3) 대인관계문제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관계문제 검사 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KIIP-SC)은 Baer, Horowitz, Rosenberg, Ureno 그리고 Villasenor(1988)가 대인관계문제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를 개발하고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64문항으로 재구성한 원형척도(IIP-Circumplex Scale, IIP-C)를 김영환 등(200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KIIP)의 단축형이다. 이 척도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척도구성은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통제 지배(PA), 자신의 안녕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자기중심성(BC),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냉담(DE), 비사회적인 경향, 수줍음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사회적 억제(FG), 자신감, 주장성 및 자존감의 결여와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비주장성(HI),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설득, 이용당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순응성(JK),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희생(LM),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여와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관여(NO)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고, 각각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개의 요인에 대해 선행 연구들을(오남경, 2009; 안은화, 2012; Horney, 1992/1996) 참고하여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은 ‘사람들에게 향함’으로, 통제지

배, 과관여는 ‘사람들에게 맞섬’으로,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으로 나누어졌으며, 기존 연구들에서 자기중심성이 ‘사람들에게 맞섬’에 포함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Kaiser-Meyer-Olkin(KMO)값은 0.90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률이 $p < .001$ 로 변수선정은 상당히 좋았으며,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표5).

‘사람들에게 향함’에 해당하는 비주장성 문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과순응성 문항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자기희생 문항에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가 있다. ‘사람들에게 맞섬’에 해당하는 통제지배 문항에는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과관여 문항에는 ‘너무 존경받고 싶어 한다’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해당하는 자기중심성 문항에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기가 어렵다’, 냉담 문항에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사회적 억제에는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가 있다.

설문형식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김영환 등(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61-.89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8-.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사람들에게 향함 .88, 사람들에게 맞섬 .81, 사람에게 멀어짐 .91, 대인관계문제 전체는 .86으로 나타났다.

표 5. 대인관계문제 하위영역 구성

구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Cronbach's α	Cronbach's α
사람들에게 향함	비주장성	5	1, 3, 5, 11, 16	.850	.883
	과순응성	5	14, 23, 34, 37, 39	.792	
	자기희생	5	20, 24, 25, 32, 40	.668	

사람들 에게 맞섬	통제지배	5	19, 21, 27, 30, 33	.711	.813
	과관여	5	26, 28, 29, 35, 38	.715	
사람들 에게서 멀어짐	자기중심성	5	6, 7, 10, 13, 22	.815	.913
	냉담	5	2, 8, 9, 15, 18	.842	
	사회적 억제	5	4, 12, 17, 31, 36	.809	
전체					.857

4)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본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측정하고자 성별, 연령, 직업 상태를 조사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남=1, 여=0).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에 대해 SPSS Statistics 21 를 활용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타당도과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후 성별·연령에 따른 차이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증 및 One 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접촉경계혼란, 정서인식,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인관계문제들에 미치는 접촉경계혼란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접촉경계혼란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다중매개모형(multiple mediator model)의 분석절차를 진행하였다. Preacher와 Hayes가 개발한 Spss macro는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전체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해 주며, 준거변인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인들을 공변량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정지현, 권석만, 2012).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되었듯이 정서 명확성과 정서주의의 상이한 연구결과에 따라 정서인식뿐 아니라 두 개의 하위변인인 정서 명확성과 정서주의를 구분하여 검증하였고, 분석을 위해 SPSS macro를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1000이었으며,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평가하기 위해 95% 신뢰수준을 사용하였다.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접촉경계혼란, 정서인식,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

1) 접촉경계혼란, 정서인식, 대인관계문제의 기술통계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접촉경계혼란, 정서인식, 대인관계문제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접촉경계혼란과 관련된 4가지 하위요인 중 내사의 평균($M=4.73$, $SD=.64$)이 가장 높았으며, 연결성, 복합혼란, 투사 순($M=3.50$, $SD=.86$; $M=3.23$, $SD=.63$; $M=2.61$, $SD=.77$)으로 나타났다. 접촉경계혼란 하위변인간의 평균차이가 있는 것에 비해 정서인식 하위요인인 정서명확성과 정서주의의 평균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M=3.69$, $SD=.51$; $M=3.64$, $SD=.66$). 대인관계문제에서는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사람들에게 맞섬 순으로 나타났다($M=2.40$, $SD=.65$; $M=2.23$, $SD=.59$; $M=2.17$, $SD=.55$).

2)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변인들이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별(남=1, 여=0)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접촉경계혼란, 정서인식,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들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접촉경계혼란, 정서인식, 대인관계문제 전체에서 남녀 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이는 접촉경계혼란에서의 남녀 차이를 연구한 기존 연구

표 6. 접촉경계혼란, 정서인식, 대인관계문제의 기술통계 분석(N=297)

변인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 최대값	왜도	첨도
접촉경계혼란	3.52(.37)	2.49-4.85	.28	.51
내사	4.73(.64)	2.00-6.00	-.57	.78
투사	2.61(.77)	2.00-6.00	.32	-.31
연결성	3.50(.86)	1.60-5.80	.08	-.45
복합혼란	3.23(.63)	1.50-4.93	-.03	.10
정서인식	3.68(.43)	2.00-5.00	-.17	-.38
정서명확성	3.69(.51)	1.91-4.91	-.39	.57
정서 주의	3.64(.66)	1.80-5.00	-.30	-.14
대인관계문제	2.40(.61)	1.00-4.50	.18	.19
사람들에게 향함	2.40(.65)	1.00-4.67	.35	.49
사람들에게 맞섬	2.17(.55)	1.00-3.90	.17	-.28
사람에게 멀어짐	2.23(.59)	1.00-4.20	.27	-.07

표 7.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독립표본 t 검증 (N=297, 남=101, 여=196)

변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값	p 값
정서명확성	남자	3.82	.50	3.06**	.00
	여자	3.63	.51		
정서주의	남자	3.53	.72	-2.06*	.04
	여자	3.70	.63		
내사	남자	4.78	.65	1.06	.29
	여자	4.70	.64		
투사	남자	2.61	.82	.03	.98
	여자	2.61	.75		
연결성	남자	3.40	.76	-1.59	.13
	여자	3.55	.91		
복합혼란	남자	3.18	.59	-1.11	.27
	여자	3.26	.66		
사람들에게 향함	남자	2.44	.69	.83	.41
	여자	2.37	.63		
사람들에게 맞섬	남자	2.15	.55	-.41	.69
	여자	2.17	.55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남자	2.32	.55	2.05*	.04
	여자	2.18	.60		

* $p < .05$, ** $p < .01$

(유계식, 2001)와는 다른 결과였다. 그러나 정서인식 하위변인인 정서명확성 ($t=3.06, p<.01$)과 정서주의($t=-2.06, p<.05$)에서 남녀 집단 차이가 있었는데, 정서명확성의 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정서주의 수준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들 중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05, p<.05$). 이는 남녀차이를 보이지 않은 안은화(2012)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고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하며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연령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연령에 따른 각 변인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표 8과 같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접촉경계혼란 하위변인 중 내사와 복합혼란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 285)=3.91, p<.05; F(2, 285)=5.97, p<.01$]. 사후검증 결과, 내사에서 20대와 40대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복합혼란에서는 20대와 30, 40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0대는 20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내사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20대는 30, 40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복합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서인식 하위변인들 중에서는 정서명확성이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F=(2, 285)=4.84, p<.01$], 사후검증 결과 20대와 30, 40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결과에 따르면, 30대와 40대는 20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정서명확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 하위변인들 중에서는 ‘사람들에게 맞섬’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F(2,285)=7.78, p<.01$), 사후검증 결과

20대는 40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맞섬’의 대인관계문제를 보였다. 대인관계문제에서 ‘사람들에게 향함’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4)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

접촉경계혼란, 정서인식,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가설1-1, 1-2에 제시한 것처럼 접촉경계혼란은 대인관계문제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r=.29, p<.01$), 정서인식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r=-.20, p<.01$). 또한, 가설 1-3과 같이 정서인식은 대인관계문제와 부적상관을 보였다($r=-.36, p<.01$).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내사는 유일하게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서 멀어짐’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r=-.14, p<.05$), 투사는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에게서 멀어짐’,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순으로 다소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57, p<.01$; $r=.51, p<.01$; $r=.40, p<.01$). 연결성은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사람들에게 향함’과 다소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r=-.42, p<.01$; $r=-.42, p<.01$). 복합혼란은 대인관계문제 중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순으로 다소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53, p<.01$; $r=.53, p<.01$; $r=.43, p<.01$).

둘째, 접촉경계혼란과 정서인식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복합혼란($r=-.38, p<.01$), 투사($r=-.35, p<.01$)는 정서명확성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정서주의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내사와 연결성은 정서

표 8. 연령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분산분석 (N=288)

변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연령					
내사	20대	69	4.57	.65	3.91*	20대<30대
	30대	86	4.68	.70		20대<40대*
	40대	133	4.82	.57		30대<40대
투사	20대	69	2.62	.80	0.16	20대<30대
	30대	86	2.67	.85		20대>40대
	40대	133	2.61	.71		30대>40대
연결성	20대	69	3.58	.86	1.55	20대<30대
	30대	86	3.59	.91		20대>40대
	40대	133	3.41	.82		30대>40대
복합혼란	20대	69	3.46	.60	5.97**	20대>30대*
	30대	86	3.17	.61		20대>40대*
	40대	133	3.16	.66		30대>40대
정서 명확성	20대	69	3.54	.52	4.84**	20대<30대*
	30대	86	3.75	.54		20대<40대*
	40대	133	3.76	.47		30대<40대
정서주의	20대	69	3.68	.63	1.25	20대<30대
	30대	86	3.73	.68		20대>40대
	40대	133	3.59	.65		30대>40대
사람들에 게 향함	20대	69	2.46	.64	4.84	20대>30대
	30대	86	2.42	.76		20대>40대
	40대	133	2.37	.59		30대>40대
사람들에 게 맞섬	20대	69	2.37	.50	7.78**	20대>30대
	30대	86	2.18	.55		20대>40대*
	40대	133	2.06	.53		30대>40대
사람들에 게서 떨어짐	20대	69	2.31	.54	0.68	20대>30대
	30대	86	2.21	.67		20대>40대
	40대	133	2.22	.55		30대<40대

* $p < .05$, ** $p < .01$

명확성, 정서주의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정서인식과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의 경우, 정서 명확성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r=-.32, p<.01$; $r=-.30, p<.01$; $r=-.29, p<.01$). 정서주의는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서 멀어짐’과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17, p<.01$; $r=-.17, p<.01$), ‘사람들에게 맞섬’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00, p>.05$).

2. 접촉경계혼란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접촉경계혼란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예측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표 10), $p<.05$ 수준에서 영향력이 없는 변인들은 생략되었다.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인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접촉경계혼란인 ‘내사’, ‘투사’, ‘연결성’, ‘복합혼란’을 예측변인으로 하였으며, 예측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로 인해 비롯되는 다중공선성과 잔차의 독립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와 Durbin-Watson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1) 접촉경계혼란 하위요인들이 대인관계문제 ‘사람들에게 향함’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사람들에게 향함’에 대해서 내사, 투사, 연결성, 복합혼란은 변량의 41%를 설명하였다. ‘사람들에게 향함’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접촉경계혼란은 복합혼란이었고($F(1,295)=113.57, p<.001$), 설명변량은 28%였다. 연결성의 경우, ‘사람들에게 향함’ 변량의 8%를 설명하였으며($F(2, 294)=80.98$,

표 9.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N=29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접촉경계혼란	1											
2. 내사	.52**	1										
3. 투사	.65**	.01	1									
4. 연결성	.31**	-.01	-.27**	1								
5. 복합혼란	.61**	.11	.59**	-.29**	1							
6. 정서인식	-.20**	.11	-.34**	.13*	-.34**	1						
7. 정서명확성	-.24**	.11	-.35**	.09	-.38**	.88**	1					
8. 정서주의	.00	.04	-.10	.11	-.06	.59**	.14*	1				
9. 대인관계문제	.29**	-.05	.61**	-.46**	.61**	-.36**	-.34**	-.17**	1			
10. 사람들에게 향함	.22**	-.07	.51**	-.42**	.53**	-.33**	-.30**	-.17**	.84**	1		
11. 사람들에게 맞섬	.39**	-.01	.40**	-.00	.43**	-.23**	-.29**	.00	.27**	.25**	1	
12.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22**	-.14*	.57**	-.42**	.53**	-.34**	-.32**	-.17**	.86**	.77**	.33**	1

* $p < .05$, ** $p < .01$

$p < .001$], 투사는 변량의 5%를 설명하였다 [$F(3,293)=65.15, p < .001$]. 마지막으로 내사는 1%를 설명하였다 [$F(4,292)=52.17, p < .001$]. 분산팽창지수(VIF)는 1.00-1.57로 모두 10이하였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80로서 2근 차이기 때문에 잔차 간에 상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 접촉경계혼란 하위요인들이 대인관계문제 ‘사람들에게 맞섬’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에게 맞섬’에 대해서 투사, 연결성, 복합혼란은 변량의 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람들에게 맞섬’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접촉경계혼란은 복합혼란 이었고 [$F(1,295)=65.00, p < .001$], 설명변량은 18%였다. 투사는 ‘사람들에게 맞섬’ 변량의 4%를 설명하였으며 [$F(2,294)=40.66, p < .001$], 연결성은 2%를 설명하였다 [$F(3,293)=30.81, p < .001$]. 단계적 회귀분석은 통계적 유의도가 가장 높은 변인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며, 낮은 예측변인을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내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p > .05$). 분산팽창지수(VIF)는 1.01-1.52로 모두 10이하였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90였다.

3) 접촉경계혼란 하위요인들이 대인관계문제 ‘사람에게서 멀어짐’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사람에게서 멀어짐’에 대해서 내사, 투사, 연결성, 복합혼란은 변량의 48%를 설명하였으며, ‘사람에게서 멀어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접촉경계혼란은 투사 [$F(1,295)=141.76, p < .001$]로 설명변량은 33%였다. 연결성은 ‘사람에게서 멀어짐’ 변량의 7%를 설명하였고 [$F(2,294)=98.48,$

$p < .001$], 복합혼란은 변량의 4%를 설명하였다 [$F(3,293)=77.25, p < .001$]. 마지막으로 내사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변량의 4%를 설명하였다 [$F(4,292)=68.94, p < .001$]. 분산팽창지수(VIF)는 1.00-1.57로 모두 10이하였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85였다.

대인관계문제 총점에 대해서 내사, 투사, 연결성, 복합혼란은 변량의 55%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그 중 투사가 37%로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다 [$F(1,295)=174.48, p < .001$]. 연결성은 변량의 10% [$F(2,294)=129.00, p < .001$]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복합혼란은 변량의 7% [$F(3,293)=112.77, p < .001$]를 설명하였다. 내사는 변량의 1%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F(4,292)=89.36, p < .001$], 분산팽창지수(VIF)는 1.00-1.57로 모두 10이하였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1.94였다.

3.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1)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 명확성과 정서주의의 매개효과

접촉경계혼란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 명확성과 정서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준거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과 연령을 공변량으로 설정한 후, 다중 매개모형(multiple mediator model)에 따라 분석하였다.

접촉경계혼란과 정서 명확성, 정서주의,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매개모델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접촉경계혼란이 높을수록 정서 명확성은 적어지며($B = -.33, p < .001$), 정서 명확성과 정서주의가 적어지면 대인관계문제는 높아진다($B = -.39, p < .001; B = -.14, p < .01$). 접촉경계혼

표 10.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β	t	R ²	ΔR^2	F	
사람들에게 향함	1	복합혼란	.54	10.66	.28		113.57***	
	2	복합혼란	.46	9.07	.36	.08	80.98***	
		연결성	-.22	-5.93				
	3	복합혼란	.31	5.24	.40	.05	65.15***	
		연결성	-.20	-5.47				
		투사	.22	4.69				
	4	복합혼란	.32	5.47	.41	.01	52.17***	
		연결성	-.20	-5.47				
		투사	.23	4.89				
		내사	-.13	-2.89				
	사람들에게 맞섬	1	복합혼란	.37	8.06	.18		64.99***
		2	복합혼란	.25	4.50	.22	.04	40.66***
투사			.17	3.68				
3		복합혼란	.28	4.99	.24	.02	30.81***	
		투사	.19	4.09				
		연결성	.10	2.98				
사람들에게 서 멀어짐	1	투사	.43	11.91	.33		141.76***	
	2	투사	.38	10.48	.40	.07	98.48***	
		연결성	-.20	-6.13				
	3	투사	.27	6.50	.44	.04	77.25***	
		연결성	-.17	-5.49				
		복합혼란	.23	4.61				
	4	투사	.28	7.01	.48	.04	68.94***	
		연결성	-.17	-5.59				
복합혼란		.25	5.08					
내사		-.19	-5.00					
대인관계문 제 총점	1	투사	.48	13.21	.37		174.48***	
	2	투사	.41	11.81	.47	.10	129.00***	
		연결성	-.23	-7.27				
	3	투사	.27	6.90	.54	.07	112.77***	
		연결성	-.20	-6.58				
		복합혼란	.32	6.58				
	4	투사	.27	7.16	.55	.01	89.36***	
		연결성	-.19	-6.60				
		복합혼란	.32	6.84				
		내사	-.12	-3.07				

* $p < .05$, ** $p < .01$, *** $p < .001$

* 이 표에서는 $p < .05$ 수준에서 영향력이 없는 변인들은 생략하였음.

란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유의하였다($B=.48, p<.001$). 즉, 접촉 경계혼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변인을 고려했을 때,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의 직접적인 관계도 유의하였다 ($B=.35, p<.01$).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과 정서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가 표11에 제시되어 있다. 두 변인의 전체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4, .23]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경계혼란이 정서 명확성을 거쳐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6, .23]으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 명확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접촉경계혼란이 정서주의를 거쳐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이 [-.05, .03]으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서주의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명확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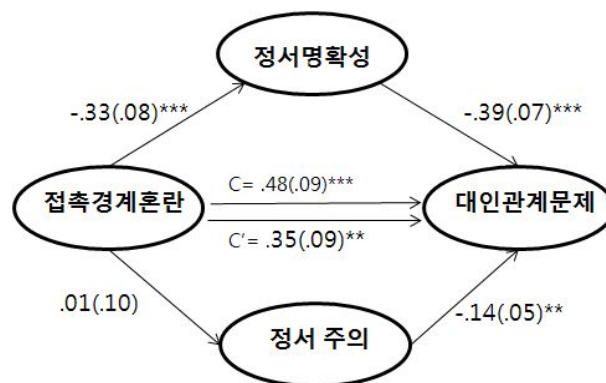


그림 2.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표 11.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예측변인	매개변인	대인관계문제	
		간접효과(B)	95% CI
접촉경계 혼란	전 체	.13(.05)	[.04, .23]
	정서명확성	.13(.04)	[.06, .23]
	정서주의	-.00(.02)	[-.05, .03]

2)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과 정서주의의 매개효과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접촉경계혼란 하위요인들의 설명력이 차이가 나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자 접촉경계혼란 하위요인, 정서 명확성, 정서주의,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준거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과 연령을 공변량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대인관계문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순서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다른 변인들과 상관을 보이지 않고 영향력이 미비한 내사는 제외하였다.

① 접촉경계혼란(복합혼란, 연결성, 투사)과 ‘사람들에게 향함’과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

복합혼란과 정서 명확성, 정서주의, ‘사람들에게 향함’의 관계에 대한 매개모델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그림3에 제시되어 있다. 복합혼란이 높을수록 정서 명확성은 적어지며($B=-.29, p<.001$), 정서 명확성이 적어지면 ‘사람들에게 향함’은 높아진다($B=-.19, p<.01$). 복합혼란과 정서주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B=-.09, p>.05$), 정서주의가 높으면 대인관계문제 ‘사람들에게 향함’은

적어진다($B=-.14, p<.01$). 복합혼란이 ‘사람들에게 향함’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유의하였다($B=.55, p<.001$). 즉, 복합혼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인 ‘사람들에게 향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변인을 고려했을 때, 복합혼란과 ‘사람들에게 향함’의 직접적인 관계도 유의하였다($B=.48, p<.001$).

복합혼란과 ‘사람들에게 향함’과의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과 정서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가 표12에 제시되어 있다. 두 변인의 전체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2, .13]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혼란이 정서 명확성을 거쳐 ‘사람들에게 향함’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1, .11]으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주의를 거쳐 ‘사람들에게 향함’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0, .05]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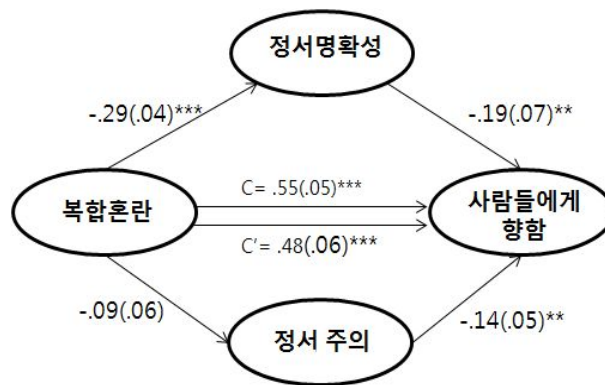


그림 3. 복합혼란과 ‘사람들에게 향함’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연결성과 정서 명확성, 정서주의, ‘사람들에게 향함’의 관계에 대한 매개모델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연결성이 높을수록 정서

명확성은 높아지며($B=.08, p<.05$), 정서명확성이 높으면 ‘사람들에게 향함’은 낮아진다($B=-.36, p<.001$). 또한, 연결성이 높으면 정서주의가 높아지며($B=.10, p<.05$), 정서주의가 높으면 ‘사람들에게 향함’은 낮아진다($B=-.11, p<.05$). 연결성이 대인관계문제 ‘사람들에게 향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였다($B=-.33, p<.001$). 즉, 연결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인 ‘사람들에게 향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변인을 고려했을 때, 연결성과 ‘사람들에게 향함’의 직접적인 관계도 유의하였다($B=-.29, p<.001$).

연결성과 ‘사람들에게 향함’과의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 및 정서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가 표12에 제시되어 있다. 두 변인의 전체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8, -.01]$ 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성이 정서 명확성을 거쳐 ‘사람들에게 향함’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6, -.01]$ 으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주의를 거쳐 ‘사람들에게 향함’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4, .00]$ 으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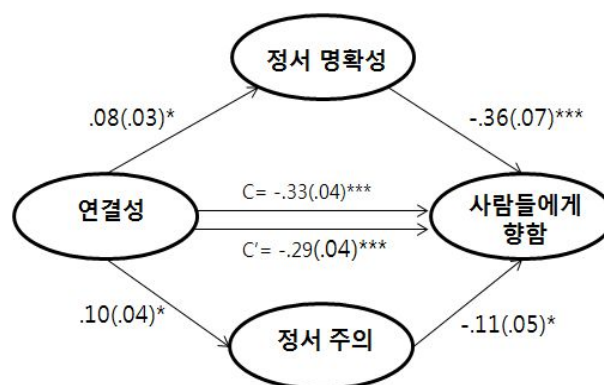


그림 4. 연결성과 ‘사람들에게 향함’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투사와 정서 명확성, 정서주의, ‘사람들에게 향함’의 관계에 대한 매개모델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투사가 높을수록 정서 명확성은 적어지며($B=-.26, p<.001$), 정서 명확성이 낮으면 ‘사람들에게 향함’은 높아진다($B=-.20, p<.01$). 투사와 정서주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B=-.08, p>.05$), 정서주의가 높으면 ‘사람들에게 향함’는 낮아진다($B=-.13, p<.05$). 투사가 ‘사람들에게 향함’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유의하였다($B=.43, p<.001$). 즉, 투사가 높을수록 ‘사람들에게 향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변인을 고려했을 때, 투사와 ‘사람들에게 향함’의 직접적인 관계도 유의하였다($B=.37, p<.001$).

투사와 ‘사람들에게 향함’과의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과 정서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두 변인의 전체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2, .12]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사가 정서 명확성을 거쳐 ‘사람들에게 향함’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1, .1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주의를 거쳐 ‘사람들에게 향함’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0, .04]으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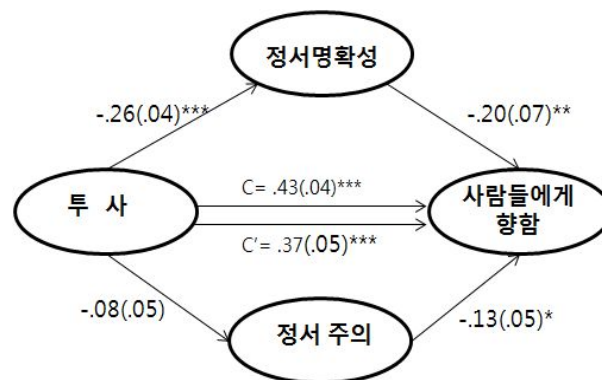


그림 5. 투사와 ‘사람들에게 향함’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표 12. 접촉경계혼란과 ‘사람들에게 향함’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접촉경계혼란	매개변인	사람들에게 향함	
		간접효과(B)	95% CI
복합혼란	전 체	.07(.03)	[.02, .13]
	정서명확성	.06(.03)	[.01, .11]
	정서주의	.01(.01)	[-.00, .05]
연결성	전 체	-.04(.02)	[-.08, -.01]
	정서명확성	-.03(.01)	[-.06, -.01]
	정서주의	-.01(.01)	[-.04, .00]
투사	전 체	.06(.02)	[.02, .12]
	정서명확성	.05(.02)	[.01, .10]
	정서주의	.01(.01)	[-.00, .04]

② 접촉경계혼란(복합혼란, 투사, 연결성)과 ‘사람들에게 맞섬’과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

복합혼란과 정서 명확성, 정서주의, ‘사람들에게 맞섬’의 관계에 대한 매개모델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복합혼란이 높을수록 정서 명확성은 적어지며($B=-.30, p<.001$), 정서 명확성이 낮으면 ‘사람들에게 맞섬’은 더해진다($B=-.20, p<.01$). 복합혼란과 정서주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B=-.09, p>.05$), 정서주의와 ‘사람들에게 맞섬’의 관계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B=.03, p>.05$). 복합혼란이 ‘사람들에게 맞섬’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유의하였다($B=.34, p<.001$). 즉, 복합혼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인 ‘사람들에게 맞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변인을 고려했을 때, 복합혼란과 ‘사람들에게 맞섬’의 직접적인 관계도 유의하였다($B=.28, p<.001$).

복합혼란과 ‘사람들에게 맞섬’과의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과 정서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가 표13에 제시되어 있다. 두 변인의 전체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2, .11]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혼란이 정서 명확성

을 거쳐 ‘사람들에게 맞섬’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2, .11]으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그러나 정서주의를 거쳐 ‘사람들에게 맞섬’으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이 [-.02, .00]으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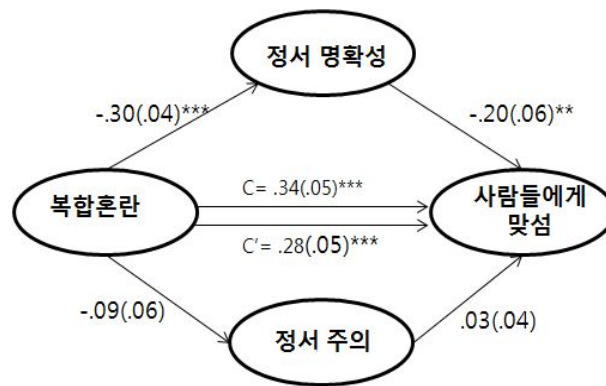


그림 6. 복합혼란과 ‘사람들에게 맞섬’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투사와 정서 명확성, 정서주의, ‘사람들에게 맞섬’의 관계에 대한 매개모형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투사가 높을수록 정서 명확성은 적어지며($B = -.26, p < .001$), 정서 명확성이 낮으면 ‘사람들에게 맞섬’은 높아진다($B = -.19, p < .01$). 투사와 정서주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B = -.08, p > .05$), 정서주의와 ‘사람들에게 맞섬’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 = .03, p > .05$). 투사가 ‘사람들에게 맞섬’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유의하였다($B = .27, p < .001$). 즉, 투사가 높을수록 ‘사람들에게 맞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변인을 고려했을 때, 투사와 ‘사람들에게 맞섬’의 직접적인 관계도 유의하였다($B = .23, p < .001$).

투사와 ‘사람들에게 맞섬’과의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과 정서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가 표13에

제시되어 있다. 두 변인의 전체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1, .09]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사가 정서 명확성을 거쳐 ‘사람들에게 맞섬’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1, .09]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주의를 거쳐 ‘사람들에게 맞섬’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2, .00]으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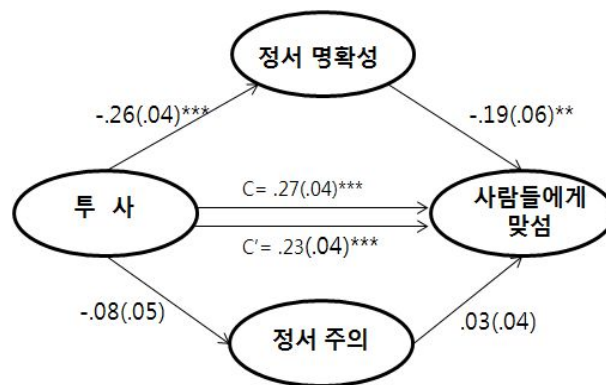


그림 7. 투사와 ‘사람들에게 맞섬’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연결성과 정서 명확성, 정서주의, ‘사람들에게 맞섬’의 관계에 대한 매개모형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그림 8에 제시되어 있다. 연결성이 높을수록 정서 명확성은 높아지며($B = .08, p < .05$), 정서 명확성이 높으면 ‘사람들에게 맞섬’은 낮아진다($B = -.33, p < .001$). 또한, 연결성이 높으면 정서주의가 높아지나($B = .10, p < .05$), 정서주의와 ‘사람들에게 맞섬’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2, p > .05$). 연결성이 대인관계문제 ‘사람들에게 맞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B = -.02, p > .05$), 매개변인을 고려했을 때도 연결성과 ‘사람들에게 맞섬’의 직접적인 관계도 유의하지 않았다($B = .00, p > .05$).

연결성과 ‘사람들에게 맞섬’과의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 및 정서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가 표13에 제시되어 있다. 두 변인의 전체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5, .00]로 0을 포함해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성이 정서 명확성을 거쳐 ‘사람들에게 맞섬’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5, -.01]으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주의를 거쳐 ‘사람들에게 맞섬’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1, .02]으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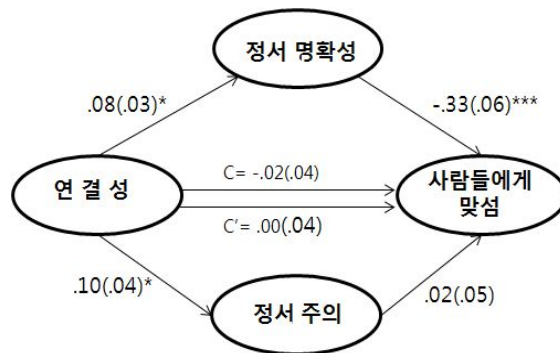


그림 8. 연결성과 ‘사람들에게 맞섬’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표 13. 접촉경계혼란과 ‘사람들에게 맞섬’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 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접촉경계혼란	매개변인	사람들에게 맞섬	
		간접효과(B)	95% CI
복합혼란	전 체	.06(.02)	[.02, .11]
	정서명확성	.06(.02)	[.02, .11]
	정서주의	-.00(.01)	[-.02, .00]
투사	전 체	.05(.02)	[.01, .09]
	정서명확성	.05(.02)	[.01, .09]
	정서주의	-.00(.01)	[-.02, .00]
연결성	전 체	-.02(.01)	[-.05, .00]
	정서명확성	-.03(.01)	[-.05, -.01]
	정서주의	.00(.01)	[-.01, .02]

③ 접촉경계혼란(투사, 연결성, 복합혼란)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과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

투사와 정서 명확성, 정서주의,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관계에 대한 매개모델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그림 9에 제시되어 있다. 투사가 높을수록 정서 명확성은 적어지며($B=-.26, p<.001$), 정서 명확성이 적어지면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은 커진다($B=-.19, p<.01$). 투사와 정서주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정서주의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B=-.09, p>.05$; $B=-.07, p>.05$). 투사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유의하였다($B=.43, p<.001$). 즉, 투사가 높을수록 ‘사람들에게 멀어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변인을 고려했을 때, 투사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직접적인 관계도 유의하였다($B=.37, p<.001$).

투사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과의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과 정서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가 표14에 제시되어 있다. 두 변인의 전체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2, .10]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사가 정서 명확성을 거쳐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2, .10]으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했다. 그러나 정서주의를 거쳐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으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이 [-.00, .03]으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성과 정서 명확성, 정서주의,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관계에 대한 매개모델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그림 10에 제시되어 있다. 연결성이 높을수록 정서 명확성은 커지며($B=.08, p<.05$), 정서 명확성이 커지면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은 적어진다($B=-.36, p<.001$). 연결성이 높을수록 정서주의는 커지며($B=.10, p<.05$), 정서주의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B=-.05,$

$p > .05$). 연결성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유의하였다 ($B = -.32, p < .001$). 즉, 연결성이 높을수록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변인을 고려했을 때, 연결성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직접적인 관계도 유의하였다 ($B = -.28, p < .001$).

연결성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과의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과 정서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두 변인의 전체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6, -.01$]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성이 정서 명확성을 거쳐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6, -.01$]으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다. 그러나 정서주의를 거쳐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으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이 [$-.02, .00$]으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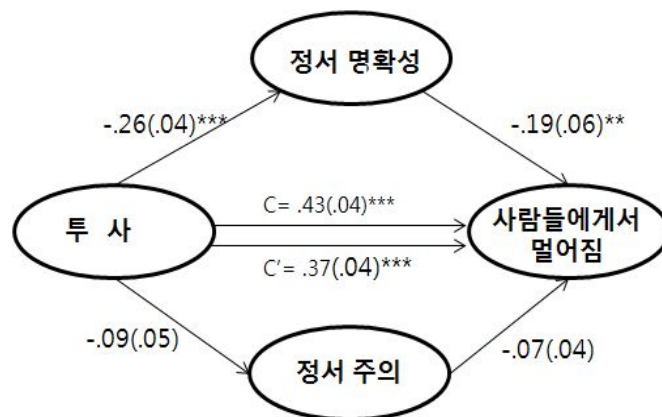


그림 9. 투사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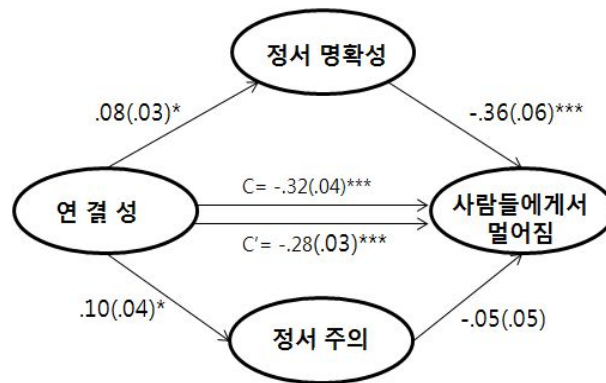


그림 10. 연결성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 모형

복합혼란과 정서 명확성, 정서주의, ‘사람들에게 멀어짐’의 관계에 대한 매개 모형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가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다. 복합혼란이 높을수록 정서 명확성은 적어지며($B=-.30, p<.001$), 정서 명확성이 적어지면 ‘사람들에게 멀어짐’은 높아진다($B=-.22, p<.01$). 복합혼란과 정서주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정서주의와 ‘사람들에게 멀어짐’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B=-.09, p>.05; B=-.07, p>.05$). 복합혼란이 ‘사람들에게 멀어짐’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유의하였다($B=.50, p<.001$). 즉, 복합혼란이 높을수록 ‘사람들에게 멀어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변인을 고려했을 때, 복합혼란과 ‘사람들에게 멀어짐’의 직접적인 관계도 유의하였다($B=.43, p<.001$).

복합혼란과 ‘사람들에게 멀어짐’과의 관계에서 정서 명확성과 정서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두 변인의 전체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3, .12]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혼란이 정서 명확성을 거쳐 ‘사람들에게 멀어짐’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03, .12]으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다. 그러나 정서주의를 거쳐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으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이 [

-0.00, .03]으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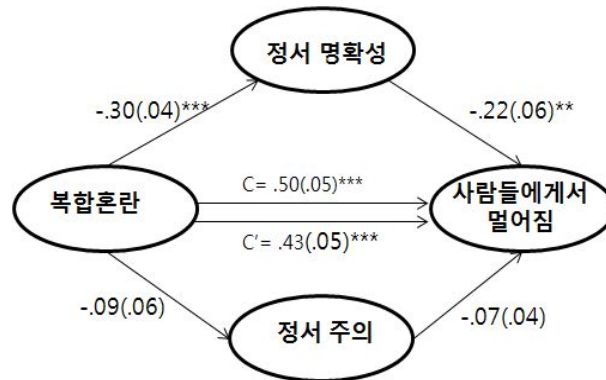


그림 11. 복합혼란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다중매개모형

표 14. 접촉경계 혼란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 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접촉경계혼란	매개변인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간접효과(B)	95% CI
투사	전 체	.06(.02)	[.02, .10]
	정서명확성	.05(.023)	[.02, .10]
	정서주의	.01(.01)	[-.00, .03]
연결성	전 체	-.03(.01)	[-.06, -.01]
	정서명확성	-.03(.01)	[-.06, -.01]
	정서주의	-.01(.01)	[-.02, .00]
복합혼란	전 체	.07(.02)	[.03, .12]
	정서명확성	.06(.02)	[.03, .12]
	정서주의	.01(.01)	[-.00, .03]

V. 논 의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접촉경계혼란은 정서인식의 영향력을 고려한 후에도 대인관계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접촉경계혼란이 대인관계문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이전 연구 결과(김주희 등, 2008, 2012; 최종기, 2005)과 일치되는 것이며, 정서인식의 영향력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접촉경계혼란, 대인관계문제, 정서인식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음은 새롭게 보여 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접촉경계혼란과 관련된 연구가 드물고 접촉경계혼란이 어떤 과정을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정서인식 하위요인인 정서명확성과 정서주의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접촉경계혼란은 정서인식과 부적상관, 대인관계문제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인식과 대인관계문제는 부적상관을 보여 가설 1-1, 1-2, 1-3이 모두 확인되었다. 우선, 접촉경계혼란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결과를 살펴보면, 내사와 다른 요인들-투사, 연결성, 복합혼란-과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결성과 투사, 복합혼란은 낮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투사와 복합혼란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접촉경계혼란 타당도 연구(김지원, 2015)에서 연결성이 투사, 복합혼란과 부적상관을 보이기는 하지만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것과는 다른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는 연결성과 다른 하위요인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사의 경우 접촉경계혼란 하위요인 뿐 아니라 정서인식 등과도 상관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접촉경계혼란 요인에 대한 연구(박외숙 2004; 유계식, 2001)와 비슷한 결과이다. 박외숙 연구(2004)에서 내사는 효사상을 강조하고 어른에게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하는 한국 문화적 특성과 연관된 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부적응적 기제로서만 작용되지 않기에 신중한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또한, 내사의 평균은 다른 접촉경계혼란 요인들-연결성, 복합혼란, 투사-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고(각각 $M=4.74$, $M=3.50$, $M=3.23$, $M=2.61$),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20대보다는 40대에서 내사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내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며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특성이 있음(유계식, 2001)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사가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 중 ‘사람들에게서 멀어짐’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사회와 부모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사의 특성상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고립적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의 문제를 적게 보이며, 문화적 배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적응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임상군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내담자가 내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것이 동화과정을 거쳐 자기 것으로 내면화 한 것인지 아니면 불편감을 자각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접촉경계혼란과 정서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투사, 복합혼란과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접촉경계혼란의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연결성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이것을 정서인식의 하위요인인 정서명확성과 정서주의로 나누어서 볼 때, 접촉경계혼란은 정서명확성과의 관련성은 나타나나 정서주의와는 상관이 없었다.

이에 반해, 대인관계문제와 정서인식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향함'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은 정서명확성과 정서주의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정서명확성과 정서주의가 높으면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서 멀어짐'과 같은 대인관계문제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맞섬'의 문제는 다른 대인관계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서명확성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정서주의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서명확성이 대인관계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기존 연구들과(권진희, 2011; 김유진, 2011; 우다빈, 2013) 일치되는 결과였으나, 정서주의가 정서명확성 및 대인관계문제와 상관을 보이지 않은 김유진(2011) 연구와는 불일치되는 결과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서주의와 대인관계문제들 간의 상관이 낮은 편이며, '사람들에게 맞섬'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어 정서주의에 대한 엇갈린 연구들과 같이 좀 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서인식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에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정서명확성 수준이 높았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정서주의 수준이 높게 나오므로써 기존 연구(김유진, 2011)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정서인식 하위요인인 정서명확성, 정서주의와 다른 변인들과의 상이한 결과는 두 요인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접촉경계혼란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접촉경계혼란 하위요인-내사, 투사, 연결성, 복합혼란-들 모두 전체 대인관계문제를 설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맞섬'에서 내사를 제외하고,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대해서 접촉경계혼란 하위요인들 모두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로써 연구문제 2가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대인관계문제와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대해서 투사, 연결성, 복합혼란, 내사 순으로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투사가 심한 경우, 대부분 자신감이 없고 타인의 이목에 지나치게 예민하여 타인과의 교류나 접촉이 별로 없거나 기피 하게 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김정규, 2015; 최종기, 2005).

‘사람들에게 향함’은 복합혼란(28%), 연결성, 투사, 내사 순으로 설명력이 컸다. 복합혼란에 포함되어 있는 반전, 융합, 편향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방어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맞추거나 자신의 감각을 둔감화시키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인관계문제에서의 의존성이나 복종의 경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향함’의 문제를 유발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합혼란이 ‘사람들에게 맞섬’에서도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18%), ‘사람들에게 향함’과는 달리 투사, 연결성 순으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에게 맞섬’은 공격적인 경향이 우세하기는 하나, 보통은 부드럽고 우호적인 태도로 가려져 있으며 이 또한 ‘사람들에게 향함’과 같은 기본적인 불안에 의해 유발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Horney, 1992/2006). 따라서 접촉경계혼란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한 본 연구는 대인관계문제라는 부적응 행동에서 이미 결정 지워진 사회적 병리나 환경뿐 아니라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성에서 접촉경계혼란이 대인관계문제에 기여하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세 번째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명확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정서주의의 효과는 보이지 않아 가설 3-1은 부분 검증되었다. 게슈탈트 치료에서 알아차림은 그 자체가 바로 치료적일 수 있다고 한다(Perls et al., 1951). 이러한 알아차림에는 우리 자신 속의 사고, 감정, 환경, 행동패턴 등이 포함되며, 이중 감정 알아차림은 정서명확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개인의 욕구와 미해결과제를 해소하는데 중요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서주의는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에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 정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경험한 정서를 명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더 나은 치료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인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은 투사, 복합혼란의 관계에서 정서 주의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서명확성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연결성은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 대해서 정서명확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투사, 복합혼란 수준이 높으면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이 커질 수 있고, 연결성이 높으면 반대로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이 적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경험에 대한 명확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령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검증에서 전체 대인관계문제와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서 멀어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인관계문제 특장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복합혼란과 ‘사람들에게 맞섬’의 문제에서 30, 4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명확성은 30, 40대보다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20대의 경우 게슈탈트 치료시 감정알아차림을 매개로한 프로그램이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접촉경계혼란의 영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명확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한계점과 이후 연구

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의 표집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표집의 절차가 미흡하였다. 여자 66%로 남녀의 표집이 균등하지 못했고, 연령, 직업 또한 40대, 회사원이 46%, 62%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표집방법에 의해 내사, 연결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과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분포 뿐만 아니라 표집 방법에서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예측변인과 매개변인, 결과변인을 동일한 시기에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한 횡단적 연구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이 변인들 간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한 단기 종단 연구 또는 실험 연구를 통해 대인관계문제 해결에 정서인식과 접촉경계혼란 개선이 도움이 되는지 인과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접촉경계혼란은 어느 정도는 적응기체에 속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내사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적응적 기체로도 작용될 수 있으나, 임상집단에서는 다른 병리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임상집단이 아니라 일반 성인을 표본으로 사용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임상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과정적 변인으로 정서인식을 확인했다는 데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들 중 대부분은 상담 초기에 자신의 문제적인 대인관계 방식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정남운, 이장호, 1998). 따라서, 대인관계문제 방식에 대한 이해는 내담자들

의 심리치료 효과 뿐 아니라 치료자와 내담자의 작업동맹에서도 중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심리적 변인인 접촉 경계혼란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정서중심치료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 향상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서중심프로그램 또한 정서인식보다는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에 초점이 맞춰진 편이다. 따라서 대인관계문제 개선을 위해 정서인식에 대한 배정시간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맥락과 무관한 정서를 다루기보다는 지금-여기의 미해결과제와 연관된 주제를 통한 정서다루기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내적 정서에 대한 접촉을 늘리고 대인간 접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대사회 대인관계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은 접촉경계혼란 하위요인들과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들 각각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장에 따라 기능적으로 발휘될 수도 있다. 따라서, Croker(1988; 김지원, 2015 재인용)의 조언대로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 없이 단순화하거나, 목록화하고, 진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담자가 갖고 있는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환경과 장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참고문헌

- 고일다 (2009). **중년여성이 우울감소를 위한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유진 (2013).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의 수정과 확장. **고려대학교철학연구소, 철학연구**, 48.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30(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pp. 38-63.
- 권석만 (1997). **(젊은이를 위한)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지혜 (2010). **정서인식의 명확성, 대인관계만족도, 정서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진희 (2011). 정서인식의 명확성 및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와의 문제. **상담평가연구**, Vol. 4, No. 1, pp.37-49
- 김경희 (1995).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민정 (2003). **게슈탈트 집단치료가 가출청소년의 자기개념,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복순 (2002). **경계선 성격특성과 게슈탈트 접촉경계혼란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수 (2015. 6. 2). 마음의 감기 우울증, '스트레스'무시하면 위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6/02/20150602001253.html>.
- 김언주, 조한익 (1998). 메타기분(Metamood)의 측정 및 발달에 관한 연구. **교육발전논총**, Vol.19, No. 1, pp. 121-134.
- 김영숙 (2010).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맞벌이 여성의 신체화,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환,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pp.391-411.
- 김영혜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의 수용과 정서적 지지 그리고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예린 (2014). 직장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 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2011). 상위-기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9).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인지적 정서 조절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규 (1995, 2015). **게슈탈트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김정은, 권혁철 (2012). 정서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19(3), pp. 653-678.
- 김종운, 양민정 (2014). 대학생의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2), pp. 283-299
- 김주희, 김정규 (2012). 비행청소년의 우울과 접촉경계혼란 특성 및 대인관계특성. **한국게슈탈트치료연구**, 2(2), pp55-81.
- 김주희, 이주희 (2008). 접촉경계혼란, 대인관계 특성과 군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 27, No. 3, pp.749-766.
- 김지원 (2015). **게슈탈트 접촉경계진단검사의 타당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5). **상위기분과 공감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래 (2015. 3. 3). [국방광장] 관심과 신뢰가 있으면.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0255&ntt_writ_date=20150303

- 나혜숙 (2006). Gestalt 예술치료가 우울장애 환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3(2), pp. 361-385.
- 노안영 (2013). **게슈탈트 치료의 이해와 적용-접촉과 자각을 통한 경험적 치료**. 서울: 학지사.
- 문수백 (2013).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방법의 실제**. 서울: 학지사
- 문지영 (2013). 음악치료사의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주의력, 정서강도가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11(3), pp. 29-42.
- 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1998). 청소년 동반자살.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서**.
- 박경옥, 박기환 (2007). 정서강도와 정서인식의 명확성, 자기조절양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3, 77-95.
- 박보라, 최정숙 (2014). **자살사고를 가진 초기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서중심치료 적용 사례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여정 (2009). **청소년의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양식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외숙 (2004). 대학생들의 게슈탈트 접촉경계유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Vol. 5, No. 4, pp.941-954.
- 박은영, 홍상환, 유연옥, 김영환 (2001).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교차타당화와 임상적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 20, No. 2, pp.331-344.
- 박지선, 김인석, 현명호, 유재학 (2008). 정서자각 결함, 정서 표현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신체화, 우울, 스트레스 경험빈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13(3), pp.571-581.
- 변지은, 이수정, 유재호, 이훈구 (1997). 개인의 인지적 종료 욕구와 정서에 대한 인식정도가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 10, No. 2, pp. 55-77.

- 서순영 (2012). **아동의 정서인식 명확성 및 정서표현성과 신체화증상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분석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Vol. 22, No. 4, pp.1147-1168.
- 성선훈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조절양식 및 또래 괴롭힘 경향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혜옥 (2011). **친밀감이 부부갈등의 벽을 허문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심재우 (2015). 직장인 스트레스 주요 원인은 동료.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803215&cloc=olink|article|default
- 안범희 (2010). **대인관계론**. 서울: 태영출판사.
- 안은화 (2012). **대학생의 분리개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남경 (2009). **여학생의 애착요인과 분리개별화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다빈 (2013). **정서인식 명확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정서조절과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계식 (2001). 접촉경계장애의 남녀차이. **여성건강**, 2(2), pp.75-96
- 유계식 (2002). 신체중심 계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 14, No. 4, pp. 901-918.
- 이건성 (2009). **정서경험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대인관계능력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갑 (1999) **계슈탈트 집단상담이 초등학교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사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만석, 김명식, 권호인 (2015). 심리적 부검을 통한 전북지역 자살 실태에

-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21(2), pp.119-133.
- 이만제 (2009).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감성지능 및 대인관계 성향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9. No. 11. pp. 201-211.
- 이상하 김정규 (2012). 비행청소년을 위한 계슈탈트 집단치료의 효과 및 치료요인-공격성과 대인관계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계슈탈트치료연구**, Vol. 2, No. 1, pp.1-21.
- 이상하 (2013). 한국계슈탈트치료의 연구동향: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Vol. 3, No. 2, pp.11-25.
- 이서정 (2005). 정서인식의 명확성, 인지적 정서조절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서정 (2012).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대인관계,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정 (2010). 노인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 **한국사회보장연구**, 26(4), pp. 1-19.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pp.95-116.
- 이수진 (2013). 임상간호사의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과 업무성과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2005). 유아의 정서지능, 마음이론, 실행기능 향상을 위한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집단게임놀이 효과. **유아교육연구**, 25(3), pp. 119-147.
- 이은비, 김정규 (2013).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정서조절 곤란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계슈탈트치료연구**, Vol. 3, No. 1, pp.1-19.

- 이은순 공저 (1998). 청년기와 정서. **현대청년심리학**. 서울; 학문사.
- 이중선, 권정혜 (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 21, No. 2, pp. 313-330.
- 이주일, 민경환 (1996). 정서지능 개념의 소개 및 연구전망. **심리과학**, 5(1), pp. 67-84.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 11, No. 1, pp.117-140.
- 이하나 (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의 표현 및 갈등과 대인불안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한우, 염동문, 이미희 (2014) 대학생의 정서인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연구**, Vol. 30, No, 2, pp.415-433.
- 이현림, 박연수 (1995). 게슈탈트 치료에 대한 고찰. **인문연구**. 17(1). pp.297-323.
- 임만수 (2007). 직장내 대인관계능력향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전옥, 장성숙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pp.259-275.
- 임창희, 홍용기 (2014). **인간관계론**. 서울; 비앤엠북스.
- 장수진, 김정규 (2013). 직장인의 정서자각, 표현, 표현갈등, 지지와 정신건강의 관계. **한국게슈탈트치료연구**, Vol. 3, No. 1, pp.63-79.
-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적 자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

- 료, 20(3), pp.697-714.
- 정남운 (2001).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구성. **심리과학**, 10(1), pp.117-132.
- 정남운, 이장호 (1998). 대인관계적 상보성과 상담성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pp.95-119.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정옥분 (2007).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학지사.
- 조윤경 (2003). 한국인의 자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상담과 심리치료**, 15(1), pp.91-109.
- 최요원, 이수정 (2004). 대학생의 정서인식의 개인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pp.887-901.
- 최임정, 심혜숙 (2009). 대학생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pp. 479-492.
- 최종기 (2006). **접촉경계혼란이 경계선 성격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석, 하정철 (2011).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3), pp. 437-448.
- 한광희 (1986).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혜영, 이종승 (2000). 불안과 공격성 감소에 대한 게슈탈트 집단상담의 효과. **교육학연구**, Vol. 38, No. 4, pp. 87-100.
- 현용호 (2000). **한국인 우울증 환자의 대인관계 문제영역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 문

- 제김사 원형 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1, pp.923-940.
- 홍주현, 심은정 (2013).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pp.195-212.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pp. 521-536.
- Argyle, M. (197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dynamics(3rd ed.)* Ha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Ltd.
- Atwater E. (1994). *Psychology of adjustment: personal growth in a change world*. 김인자 역. 한국심리상담연구소.(원전 1990)
- Bastian, V. A., Burns, N. R., & Nettelbeck, T (2005). Emotional intelligence predicts life skills, but not as well as personality and cognitive abilit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6), pp.1135-1145.
- Berenbaum, H., Boden, M. T., Baker, J. P., Dizen, M., Thompson, R. J. & Abramowitz, A. (2006). Emotional correlates of the different dimensions of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 pp.359 - 68.
- Boden M. T., Berenbaum H (2012). Facets of emotional clarity and suspicious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 pp. 426-430.
- Clarkson, P. (2010). *Gestalt Counselling in Action(2nd ed.)*. 김정규, 강차연, 김한규, 이상희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 1989)
- Colarusso. C. A. (2011). *Child and Adult Development: A Psychoanalytic*

- Introduction for Clinicians.* 반건호, 정선주 공역
- Elliott, R., Watson, J.C., Goldman, R. N & Greenberg, L. S. (2013). *Learning Emotion-Focused Therapy: The Process-Experiential Approach to Change.* 신성만, 전명희, 황혜리, 김혜정, 김현정, 이은경 공역. 서울: 학지사(2004)
- Extremera, N., & Fernáez-Berrocal, P. (2005).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and life satisfaction: Predictive and incremental validity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5), pp.937-948.
- Gohm, C. L. (2003). Mood regul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pp.594-607.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reenberg, L. S., Malcolm, W. (2002). Resolving Unfinished Business: Relating Process to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70, No. 2, pp. 406-416.
- Greenberg, L. S. (2004). Emotion-focused Therap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1, pp.3-16.
- Greenberg, L. S. (2012). Emotions, the great captains of our lives: Their role in the process of change in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67(8), pp.697-707.
- Gohm, C. L., & Clore, G. L. (2002). Four latent traits of emotional experience and their involvement in well-being, coping, and attributional style. *Cognition & Emotion*, 16(4), pp.495-518.
- Hamilton, J. D. (2014). *Gestalt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A*

- holistic approach*. 윤인, 김효진, 최우영, 신성광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 1997)
- Harman, R. L. (1982). Gestalt therapy theory: Working at the contact boundaries. *The Gestalt Journal*, 5(1), pp.39-48.
- Harman, R. (1989). *Gestalt therapy with groups, couples, sexually dysfunctional men and dreams*, Springfield: Charles Thomas.
- Horney, K. (2006). *Our inner conflicts*. 이희경, 윤인, 이해리, 조한익 역. 서울: 학지사.(원전 1992)
- Horowitz, L. M. (1979) On the cognitive structure of interpersonal problems treated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5-15.
- Horowitz, L.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2), pp. 283-300.
- Joyce. P. & Sills, C. (2010). *Skills in Gestalt Counseling & Psychotherapy*. 박의순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 2001)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Press Company.
- Levitsky, A., & Perls, F. (1970). The Rules and games of Gestalt therapy. In: J. Fagan & I. Shepherd(Eds.), *Gestalt therapy now*,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Mallinckrodt, B., & Wei, M. (2005)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pp.358-367.
- Mayer, J. D., & Gaschke, Y. N. (1988). The Experience and Meta-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55(1), pp.102-111.
- Mayer, J.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pp. 3-31). New York: Basic Books.
- Mayer, J. D., & Stevens, A. A. (1994). An Emerging Understanding of the Reflective (Meta-) 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pp.351-373.
- Nevis, E. C. (2002). Intervening Beyond Organizations: Exchanges at the Contact Boundaries of Interdependent Systems. *The Analytic Press Gestalt Review*, 6(2), pp. 79-83.
- Passons, W. R.(1975). *Gestalt approaches in counseling*. NewYork: Holt, Rinehart & Winston.
- Passons, W. R.(1995). 게슈탈트 카운슬링. 우재현. 대구; 정암서원.
- Perls, F.S., Hefferline, R. E., & Goodman, P. (1951). *Gestalt Therapy: Excitement and Growth in the Human Personality*. New York: Delta.
- Perls, F. S. (1995). *The Gestalt approache & eyewitness to therapy*. 우재현, 정덕규 공역. 대구: 정암서원(원전 1976)
- Polster, E.(2006). *Uncommon Ground, Harmonizing Psychotherapy & Community*. Phoenix: Zeig, Tucker & Theisen, Inc.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 25-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warz, N., & Bohner, G. (1996). Feelings and their motivational implication: Moods and the action sequence. *The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cognition and motivation to behavior*. 2. pp.527-561.
- Shiota, M. N, Kalat. J.W.(2015). *Emotion(2nd)*. 민경환, 이옥경, 이주일, 김민희, 장승민, 김명철 공역. 서울; 센케이저러닝코리아.(원전은 2011)
- Simkin, J. S. (1976). *Gestalt Therapy: Mini-Lectures*, Millbrae, CA: Celestial Arts.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W. W. Norton.
- Swinkels, A., & Giuliano, T. A., (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Monitoring and Labeling One's Mo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9), pp.934-949
- Yalom, I. D& Leszcz, M. (2008).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최혜림, 장성숙. 서울; 하나의학사.(원전 2005)
- Yontef, G. M. (1984). Gestalt therapy. In: R.J. Corsini(Ed.) *Current Psychotherapies*. Peacock Pub. Inc.
- Yontef, G. M. (2008) *Awareness, Dialogue and Process: Essays on Gestalt therapy*. 김정규, 김영주, 심정아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1993)
- Watson, J. C., Gordon, L. B, Stermac, L., Kalogerakos, F., & Steckley, P. (2003).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process-experiential with cognitive-behavioral psychotherapy in the treatment of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 773 - 781.

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Adult Emotional awareness, Contact Boundary Disturb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Kim, Ki sook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gestalt contact boundary disturb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and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awareness between gestalt contact boundary disturb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We then surveyed 297 adults using a questionnaire that consisted of items from the Gestalt Contact Boundary Disturbance Inventory, Emotional Awareness Inventory, Interpersonal Problems Inventory. The results of our analysis revealed that gestalt contact boundary disturban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awareness and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problems. Projection, complex confluence among contact boundary disturbance sub-factor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clarity and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move toward people', 'move against people', 'move away from people'. And,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ism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move toward people', 'move away from people'. Next, we proposed and tested a model designed to evaluate person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interpersonal problem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projection score best explained interpersonal problems, and connectedness, complex confluence, introjection were significant factors also. A bootstrap approach was used to test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clarity, emotionalism. The results showed that emotional clarity mediated the influence of projection, complex confluence on 'move toward people', 'move against people' and 'move away from people'. And emotional clarity mediated the influence of connectedness on 'move toward people', 'move away from people'.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Interpersonal problems, contact boundary disturbance, emotional clarity, emotionalism, mediation effect

부 록

부록 I. 정서인식 척도

부록 II. 접촉경계혼란 척도

부록 III. 대인관계문제 척도

<부록 I> 정서인식 척도

※ 각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늘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스럽다.	1	2	3	4	5
2. 나는 내 느낌을 이해할 수가 없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없다.	1	2	3	4	5
4. 때때로 나는 나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1	2	3	4	5
5. 나는 쉽게 감정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안다.	1	2	3	4	5
7. 나는 거의 늘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1	2	3	4	5
8. 나는 거의 늘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	1	2	3	4	5
9. 나는 보통 내 느낌들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1	2	3	4	5
10. 나는 대체로 나의 느낌을 안다.	1	2	3	4	5
11. 나의 신념과 의견들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늘 변한다.	1	2	3	4	5
12. 나는 자주 나의 느낌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5
13. 나는 별로 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1	2	3	4	5
14.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5
15. 나는 보통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해 주의하지 않는다.	1	2	3	4	5
16.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보통 시간낭비다.	1	2	3	4	5

<부록II> 접촉경계혼란 척도

※ 질문지에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을 나타낸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 숫자에 즉시 떠오르는 대로 V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죄책감이 들 때가 있다.	1	2	3	4	5	6
2.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1	2	3	4	5	6
3.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것 같다.	1	2	3	4	5	6
4. 사람들이 정말 나를 안다면 나에게서 떠나 갈 것이다.	1	2	3	4	5	6
5.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다.	1	2	3	4	5	6
6. 어릴 때 내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었다.	1	2	3	4	5	6
7. 불편한 감정을 내보인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끝날 것이다.	1	2	3	4	5	6
8.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따라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9. 나중에 당황하게 될까봐 하지 못하는 행동이 많다.	1	2	3	4	5	6
10.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그냥 피해버린다.	1	2	3	4	5	6
11.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잘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1	2	3	4	5	6
12. 내 자랑을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것이다.	1	2	3	4	5	6
13. 나는 자주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다.	1	2	3	4	5	6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온전히 만족스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1	2	3	4	5	6
15.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1	2	3	4	5	6
16. 남에게 욕들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6
17. 홀로 서는 것이 두렵다.	1	2	3	4	5	6
18. 어릴 때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님께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않았다.	1	2	3	4	5	6
19.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1	2	3	4	5	6
20.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6
21. 맡은 책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	1	2	3	4	5	6
22.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1	2	3	4	5	6
23. 나의 부모님은 어릴 때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주셨다.	1	2	3	4	5	6
24.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2	3	4	5	6
25.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것이다.	1	2	3	4	5	6
26. 타인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	1	2	3	4	5	6
27.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	1	2	3	4	5	6
28.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당황해서 불안해진다.	1	2	3	4	5	6
29. 내게 힘든 일이 생기면 항상 가족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았다.	1	2	3	4	5	6

<부록Ⅲ> 대인관계문제 척도

※ 다음 문항을 읽으신 후 ‘대인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 고 느낀 정도에 V 표시해주세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2.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에게 적당한 요구라도 하기 어렵다.	1	2	3	4	5
4.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1	2	3	4	5
5.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6.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줄기가 어렵다.	1	2	3	4	5
7.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줄기가 어렵다.	1	2	3	4	5
8.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의 요구를 먼저 들어줄기가 어렵다.	1	2	3	4	5
11.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12.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한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15.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16.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지 못한다.	1	2	3	4	5
17.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	1	2	3	4	5
18.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1	2	3	4	5
19.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1	2	3	4	5
20.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1	2	3	4	5
21.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1	2	3	4	5
22. 누가 나에게 의지할 때 받아주기 싫다.	1	2	3	4	5
23. 너무 잘 속는 편이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1	2	3	4	5
25.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1	2	3	4	5
26. 너무 존경받고 싶어 한다.	1	2	3	4	5
27.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주 조종하거나 이용한다.	1	2	3	4	5
28.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견하고 싶어진다.	1	2	3	4	5
29. 친한 사람에게 너무 매달린다.	1	2	3	4	5
30. 의견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툰다.	1	2	3	4	5
31.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1	2	3	4	5
32.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 도와주려고 너무 나선다.	1	2	3	4	5
33.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한다.	1	2	3	4	5

